

“아픔 지닌 광주·제주는 제 마음 속 부채의식”

광주일보 신춘문에 출신 강대선 시인
5월 희생자 추모 시집 ‘가슴에서 핏빛 꽃이’
제주 4·3항쟁 다룬 장편소설 ‘퍼즐’ 펴내

시인은 그달을 0월이라고 했다. 왜 0월이라고 불렀더니 “잘 기억나지 않기 때문”이라고 했다. 아마도 “오래되었으나 지워지지 않은 기억의 파편”으로 남아 있는 듯했다.

시인에게 80년 5월은 특정할 수 없는 달이었다. 당시 그는 초등학교였다. 어머니와 동네 아주머니가 주먹밥을 지어 트럭에 탄 아저씨와 형들에게 주는 모습이 희미하게 떠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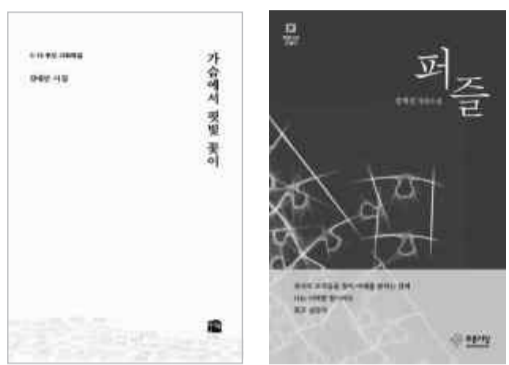
“0월이라고 말하고 싶네요. 당시 장문을 이불로 가렸는데 소리가 나갑니까, 여러 숨소리가 아팠지요. 그리고 소문으로 거리가 뒤송송해지자 우리 가족은 나주로 피난을 갔습니다.”

강대선 시인에게 그해 5월은 기억은 희미하지만 잊지 않는 시간이었다. 총에 맞아 별집이 된 자동차와 선명한 총알자국은 의식의 저변에 여전히 남아 있다.

강 시인이 이번에 5월 희생된 이들을 추모하는 시집을 펴내 눈길을 끈다. 또한 시집과 함께 제주 4·3을 다룬 장편소설 ‘퍼즐’ (푸른사상)도 동시에 출간했다. 도서출판 상상인의 5·18 추모 기획특집으로 발간된 시집 ‘가슴에서 핏빛 꽃이’는 5월을 ‘0월’로 대체해 오늘의 시간으로 불러낸다. 소설은 4·3의 진실을 기억하고 억울하게 죽어간 만자를 위로하는 데 포커스를 맞췄다.

광주일보 신춘문에 (2019) 출신이기도 한 그는 다재다능한 문인이다. 시 외에도 시조와 소설까지 영역을 넓혀 창작활동을 펼치고 있다. 광주일보 신춘문에 등단에 앞서 동아일보 신춘문에 시조로 등단했다. 지난해에는 송순문학상 우수상에 소설이 당선돼 작가로서도 역량을 검증받았다.

“시간을 내 틈틈이 창작을 합니다. 재능이 많은 게 아니라 없어서 노력을 한다는 게 맞을 겁니다.” ‘부지런한데다 문학적 재능도 많다’는 말에 그는 “전혀 그렇지 않다. 과찬이다”며 자신을 낮췄



다. 국어교사이기도 한 그는 언제 봐도 반듯하면 서도 진중한 모습이다.

“글을 써 오면서 내가 숨 쉬고 사는 공간과 시간을 고민했습니다. 광주와 제주는 이 세상에 태어나 많이 듣고 자란 그리고 많이 가본 곳이기도 하구요. 두 지역은 5·18민주항쟁과 4·3 항쟁이라는 아픔을 지니고 있는데 부채의식처럼 늘 제 의식 속에 남아 있었습니다. 언젠가 이 두 사건을 모티브로 창작을 해야겠다고 약속을 했었죠.”

그가 시집과 장편소설을 발간하게 된 이유다. 작가에게, 시인에게 특정한 사건이나 기억은 중요한 기제가 된다. 과거에는 몰랐지만 오랫동안 잠재돼 있다가 ‘발효과정’을 거치면서 자연스럽게 창작으로 연결되기 때문이다.

그는 어린 시절 피난을 떠났다가 돌아와 다락방에서 혼자 놀았던 시간을 희미하게 기억한다. 밖은 두려운 공간이었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고등학생이 된 후 농성동 성당에서 ‘광주 5·18’ 비디오했다. 너무 충격적이어서 내내 울었던 기억이 있다.

이번 시집은 5·18기념재단에서 간행한 ‘그해 0월, 나는 살고 싶었다’에 나온 희생자 증언을 시로



5월 추모시집과 4·3을 다룬 장편소설을 펴낸 강대선 시인.

연었다. 또한 2014년 열린 ‘그해, 오월전’의 내용도 참고했다.

“이 시집을 통해 패배하지 않은 정신을 말하고 싶었어요. ‘0’이라는 숫자에 총소리, 구명 난 가슴, 울음, 공동체, 망월, 광주, 역사, 진실, 희망을 담고 싶었습니다. 손에 손을 잡고 하나가 되어 도는 강강술래이기도 하고 환한 보름달이기도 하고 혼을 그리는 풍등이기도 하죠.”

“바람이 불어오면 노를 저어가자/ 바람의 노를 저어 서러운 혼들에게 바베 가지/ 이몸조차 없이 사라진 혼들이 또 얼마나/ 바람에 혼을 싣고 망월동으로 넘어가자/ 죽음을 먹고 권력을 쥔 그날의 충성은/ 0월의 하늘을 흔들고 있건만/ 죽음을 죽음으로 흘려가고/ 이 땅에는 다시 오월의 꽃이 피어난다...”(‘80년 0월’ 중에서)

작품의 지향점은 결코 패배하지 않는 광주의 정신에 닿아 있다. 시인은 헤밍웨이의 ‘노인과 바다’를 떠올린다. ‘인간을 파멸시킬 수는 있어도 패배하지 않는다’는 말을 빌려 “광주는 패배하지 않았다”고 단언한다. “불의의 신군부에 물러서지 않았던 광주의 정신은 울골은 정신으로 우뚝 서 있다”며 “광주는 깃발”이라고 강조한다.

그런 점에서 소설 ‘퍼즐’도 동일한 맥락에서의미를 찾을 수 있다. 진실을 직시함으로써 내일로 나아가는 것. 그리고 이 바탕 위에서 용서와 화해의 지점을 발견해자는 것이다.

“1948년 이땅에 좌우의 대립이 극심했던 시절 제주에서는 수많은 민간인들이 억울하게 희생을 당했습니다. 이번 소설은 당시를 살았던 사람들의 기억을 퍼즐 조각처럼 나열해가며 한국 현대사에 깊은 상흔을 남긴 4·3의 참상을 증언하지요.”

교직생활을 하며 글을 쓰는 것이 쉽지 않았지만 그는 짜투리 시간을 잘 활용한다. 학생들에게도 그렇게 말한다. 특별히 문학을 하고자 하는 학생들에게는 많이 늘 것을 권유한다. “많이 늘기는 하되 돌아와서는 글로 남기는 습관을 들이라”고 조언한다. 시간을 흘려보내지 않고 글로 남기면 나중에 그 글에서 “움이 트고 일이 나고 가지가 뻗고 한 그루의 나무가 되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것이다.

향후 계획은 “좀 더 내적인 부분을 더 충실히 채우고” 한발 물러서서 관조를 할 참이다. 많이 쓰고 공부해서 내적인 힘을 키우겠다는 의미다. /박성천 기자 skypark@kwangju.co.kr

‘2022 NEW YEAR’S PIANO CONCERT’

2월5일 유·스퀘어 문화관

‘2022 NEW YEAR’S PIANO DUO CONCERT’가 2월5일 오후 7시 유·스퀘어 문화관 금호아트홀에서 열린다.

한국음악예술교육협회(대표 문수이)가 주관하는 이번 공연에서는 브로딘, 생상스, 라흐마니노프, 차이코프스키 등의 곡을 들려준다.

레퍼토리는 브로딘 ‘이고르 공’ 중 ‘폴로베츠인의 춤’, 다리우스 미요 ‘스카라무슈’, 생상스 ‘죽음의 무도’, 라흐마니노프 ‘두 대의 피아노를 위한 모음곡 2번’, 피아졸라 ‘아디오스 노니노’, ‘리베르탱고’, 볼컴 ‘에덴의 동산’ 등이다.

이와 함께 차이코프스키의 ‘호두까기 인형 모음곡’, 엘가의 ‘위풍당당 행진곡’, 율슨의 ‘스캇 조플린 랩소디’ 등도 연주한다.

무대에는 최성화·김성아·이윤화·전초롱·김별·오다진·박순미·박세영·최은혜·문수이·김선·안은선·조예빈·박혜림·강성하·고지선 등이 오른다.

한편 한국음악예술교육협회는 한국음악교육의 발전을 위해 창간한 단체로 연주회, 세미나 등 음악인들의 예술교육활동을 통한 삶의 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활동하고 있다. 다음 공연은 ‘스승과 제자가 함께하는 피아노 콘서트’로 7월23일 유·스퀘어 문화관에서 열린다. 전석 초대. 문의 010-7187-0908. /전은재 기자 ej6621@

소리꾼 이희문

정규앨범 ‘미노!’ 31일 공개



소리꾼 이희문이 정규앨범 ‘미노!’ (Minyo!)를 오는 31일 정오에 각종 음원사이트를 통해 공개한다.

‘미노!’는 지난해 이태원 음악작가, 비주얼 디렉터 이상희 감독과 공동으로 작업해 선보인 스킨오프 뮤비(Movie, 뮤직과 무비의 합성어) ‘미노 (Minyo)’에 발표된 곡들을 수록해 새로 발매하는 앨범이다.

이 공연에서 이희문은 존재가 사라져가는 미지의 소녀 ‘미노’로 분해 새로운 시선으로 전통의 소리를 담아냈다.

앨범에는 ‘정선아리랑’, ‘창부타령’, ‘민요 메들리’ 등 총 7곡이 담겼다. 다양한 지역의 전통 소리를 아코디언과 비올라 등 서양악기와 결합해 현대적으로 풀어냈다. 특히 타이틀곡 ‘정선아리랑’은 이태원 작가 특유의 감성과 이희문의 애절한 목소리가 돋보이도록 재해석했다. /연합뉴스

바리톤 김민성, 두번째 아트팝 가곡 앨범 발매 눈길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하여’

지난해 한국가곡 탄생 100주년을 맞아 TV 프로그램이나 음악앨범 등에 한국가곡이 다시 등장하면서 그 인기가 소소하게 이어지고 있다. 여러 성악가들이 부른 윤학준의 ‘마중’, 김효근의 ‘첫사랑’ 등은 이제 우리 귀에 익숙하며, ‘내 영혼 바람 되어’ 등은 유튜브에서 수백만회 조회 수를 기록하기도 했다.

최근에는 바리톤 김민성이 두번째 아트팝 가곡 앨범을 발매해 눈길을 끈다.

김 씨는 2020년 발매한 첫 아트팝 가곡 ‘후애

(厚愛)’에 이어 두번째 아트팝 가곡 앨범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하여’ (사진)를 25일 발매했다.

아트팝 가곡은 순수 음악 장르인 예술가곡에 대중음악 발라드의 현대적 색채를 가미한 장르다. ‘내 영혼 바람 되어’ ‘첫사랑’ 등을 작곡한 김효근 교수가 2010년부터 사용하기 시작한 용어로 대중성과 예술성을 함께 추구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러한 아트팝 가곡의 흐름을 잇는 이번 앨범에 담긴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하여’는 작곡가 박대웅의 작품이다. 이 곡은 피아노 반주와 김 씨의 목소리로만 구성된 것이 특징이며 발라드적인 선율에 예술적 감성이 더해져 더욱 깊이 있는 감동을 선사한다.

깊은 울림과 짙은 감성을 가진 김 씨의 목소리는 마음을 움직이며, 노랫말 ‘우리 사랑 꽃봉오리로 박제되어 그대 내 가슴에 꽃힐 때까지’는 영원하고 소중한 사랑의 감정을 전한다.

‘더 오래 사랑하기 위하여’의 음원과 뮤직비디오는 국내 주요 음원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한편 김민성은 연세대 성악과를 졸업했으며, 프랑스 마르세유 국립음악원과 국립오페라센터와 파리국립음악원 등에서 공부했다. 현재 오페라·뮤지컬 배우, 서울기독대학 겸임교수로 활동중이다. /전은재 기자 ej6621@kwangju.co.kr



손해보험협회

돈돈한 지키자

실손의료보험! 국민건강!

올바른 의료이용에 대한 국민 여러분의 관심으로 모두의 건강을 지켜낼 수 있습니다!